

日新產院

助產院 수습과정을 마치고

首都看護學校 배영자

日新產院하면 임호계에서는 거의가 무지무지하게 일하는 곳이라고 일신선배를 통하여 듣고 있을 것이다. 그만큼 타 산원에 비하여 실습생 자신이 직접 산모와 아기를 다루며 산체험을 염려 조산원의 질적 향상을 복적으로 마련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 도시에는 거의 병원 분만을 하고 있지만 농촌에서는 모자 보건向上을 위하여 아직도 조산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또한 농촌 보건이 발전하고 있는 이 때 조산원의 할일은 너무나 많다고 본다. 이 글은 일신 졸업생으로서 앞으로 조산원 교육을 받고서 하는 분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의도에서 쓴다.

일신산원은 1952년 9월에 호주 선교사인 Dr. Machenzie 와 Miss Machenzie 형제 간의 힘으로 부산시 좌천동에 있는 조그만 유치원 건물을 빌려서 시작 하였으며 그 때는 외래 환자만 받았고 1952년 10월 처음으로 입원 환자를 받기 시작하였는데

처음 분만자는 Toxemia로서 7개월 반의 premature를 분만하여 Incubator도 없이 잘 자랐다고 한다. 1956년 3월에 치하 1 층 건물 3 층의 새 건물을 짓어(현재 건물) 이사 하였다 한다.

조산원 수습과정 교육실시는 1953년 5월 1일부터 6 months training course였고 1st class는 7명이였다고 한다. 1958년 11월 23期부터 9 months training course였고 1953년 5월 1일부터 (35기)는 의료법 개정에 따라 12 months training Course가 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1962년 12월부터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하는 조산원 교육병원이 되었고 현재까지 일신을 거쳐나온 조산원 수는 약 500명에 달하고 있다 한다.

일신산원 실습생들은 외래에서 Ante-natal care, 분만실 실습 입원 실에서의 산전, 산후간호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다는 임신중독증 예방 간호에 많은 힘을 쓰고 있으며 일주일에 1회 S.C.F. (그 곳에 있는

영국 구호재단 보건소의 조산원과 빈촌으로 산전진찰을 나가고 있다. 아기방에서는 Fullterm baby care, Sick baby care, premature care, preparation of milk formula 등 각期별로 열심히 실습하고 있으며 강의는 1일 1시간으로 마취학, 초생아 간호, 소아간호, 산부인과학, 정상분만, 이상분만을 단계적으로 배우고 있으며 실습기간중 30名 이상의 조산전학을 마친다음 단독으로 조산을 할수있게 되는데 first case 때는 instructor의 지도를 받고 다음 조산 때는 首看護員의 지도아래 수행되는데 졸업때까지 수습생 1인당 30名 이상의 delivery case 가 취급되어야한다. 8시간의 실습시간이 끝나면 개인에 따라 각자 case study를 하기위하여 O.R 견학과 같은 case에 대한 관찰에 바쁘다.

그러나 매일아침 8시 40분~9시 까지 20분간 직원이 모여서 업무한 예배를 보기도 하고 때때로 음악감상, 펜一성강습, 꽃꽂이 강습등이 있어서 즐거운 시간이 되기도 한다.

시험제도는 실습기간중 수시로 있고 필기, 구두, delivery case 병실실습 Case study 등이 있고 기숙사는 일단 교육받는 실습생은 반드시 기숙사에 입사하여 규칙적인

생활을 해야 하며 실습기간중 식사제공하며 잡비가 약간있으며 기숙사는 사감은 없고 스스로 각자가 처신해야 한다.

현 일신산원의 환자 수용 능력은 산모침대수 70대수 얘기침대수 30대며, 산파, 부인파, 소아파 환자를 받고 있으며 일평균 외래 환자수는 약 150명 입원환자 수는 70명(성인 47, 영아 23) 분만전 수 3~4명 수술전 수 2~3명으로 되어있다. 현재 수습생 모집은 4개월마다 있으며 (1年에 3回, 2月1日, 6月1日, 10月1日, 한 class의 인원은 13명이며 수속 절차는 입소원서 1통, 이력서 1통, 진강진단서, X-ray film 혹은 소견서 병원장 혹은 간호원장의 추천서 졸업증명서, 사진 3장이며, 실습과정을 마치면 일신부인병원 조산원 수료증을 수여받고 별 특권은 없으나 각병원, 보건소 등에 실력을 인정 받아 취직하기 쉽고 교육기간동안 성적이 우수하고 성격이 원만한 자에게는 앞으로 호주 유학의 특권이 있다고 한다. 일단 일년이란 기간동안 명실공히 철저한 조산학과정을 마치고 나면 확고한 自身이 생기기 앞서 위험 증상에 대한 phobia에 걸리게 되는 것은 웬일인가?